

일제 저항시인 시편 한데 묶어 일본서 출간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조선 시인 독립과 저항의 노래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편역 한글과 일본어로
윤동주·이육사·한용운·심훈·이상화·조명희 조명

식민지기 저항과 독립의 정신을 추구한 대표적인 조선시인의 주요 시편을 모은 시집이 일본에서 출간됐다.

윤동주·이육사·한용운·심훈·이상화·조명희 등 조선의 시인 6명의 주요 작품과 활동을 소개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조선 시인 독립과 저항의 노래’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의 편역으로 일본의 후바이샤(風媒社)에서 출판됐다.

윤동주·이육사·한용운의 시집은 이미 출간된 바 있는데, 이들 외에 심훈·이상화·조명희가 묶여 그들의 주요 작품이 한글과 일본어로 일본에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각 시인의 대표작 60편이 일본어와 한글 원문으로 소개됐고, 해설에는 각 시인의 생애와 활동이 실려 있어서 일본인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남북동포도 함께 읽을 수 있다.

편역자 김정훈 교수는 서문에 “최근 일본에서 윤동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시인도 소개되고 있는데, K문학을 좋아하는 일본인에게 읽히는 것은 공감을 부르는 요소가 그들의 세계에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광주 대성학원에서 문병란 시인에

게 민족문학 강의를 들으며 강렬한 감동과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문병란 시인의 가르침에 힘입어 시인이 생전에 애송하던 시인들의 시편들을 엮었으며, 그가 추구한 민족 문화와 저항정신의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만큼 문병란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대표리명환) 발

신으로 ‘일제강점기 조선 저항시인 편역서 출간 보고문’을 작성해 공개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는 표제적인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외에도 ‘자화상’ (윤동주), ‘현해탄’ (심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절정’ (이육사),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나의 고향이’ (조명희) 등이다.

김 교수는 ‘문병란 시집-직녀에게’, ‘김준테 시집-광주로 가는 길’, ‘마쓰다 도키코-시집 조선 처녀의 춤’을 번역 출간한 바 있다. 또 나주 출



책에 실린 만해 한용운 사진.



김정훈 교수

신 저항시인 이석성이 발굴돼 논문을 작성 중이다.

김 교수는 “일련의 작업을 계기로 의식의 저변에 잠재하고 있던 조선의 저항 시인들을 일본에 소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일제강점기 저항시인들의 독립 정신을 시를 매개로 계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세책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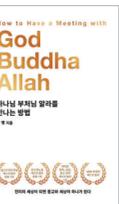
◇일상이 미니멀= 미니멀리스트 진민영의 보다 성숙하고 견고해진 미니멀 일상. 갖고 싶은 것을 꼭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또는 미니멀을 지향하는 사람. 과연 물건이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책임은 고양이. 168쪽.



◇국가경영은 세종처럼=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작가 박영규가 집필한 세종대왕의 국가경영법과 리더십 이야기. 세종의 인간적 면모와 시대를 꿰뚫고 나가는 뛰어난 정치가로서의 역량이 심도 있게 파악된다. 통나무. 320쪽.



◇하나님 부처님 알라를 만나는 방법= 평생 진리 교육에 헌신해온 저자 우영이 십 년 만에 출간한 열한 번째 저작. 종교의 본질에서부터 개인의 마음 문제에 이르기까지 214개의 화두와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참출판사. 300쪽.



광주, 문화예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 54호)가 발행됐다.

특집기획에서는 ‘문화도시 광주가 정말 문화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 및 예술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프레임 변화(조인형 광주경제교육센터장) ▲예술인의 권리 보장,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장도국 배우)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실태와 대안(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과 제언(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등의 견해와 진단을 개진한다.

‘문화청년그룹’에서는 핸드메이드 문화를 선도하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 모람플랫폼 김중인 대표의 활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동을 소개하고, ‘문화리뷰’에서는 정지원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청년인턴이 ‘남도여행에서 만난 남도의 관광자원,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을 주제로 활동리뷰를 실었다. 창 가을호 표지는 김효삼 화가의 ‘들판의 노래-봄’이 장식됐다. /이연수 기자

무안과 신안에 사도세자 제각이 있는 까닭은

문화통plus 가을호 발행

사단법인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문화전문지 문화통 plus 가을호가 발행됐다.

이번 호 전라도문화수수께기에서는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와 신안군 수도에 사도세자를 기리는 제각과 석단이 있는 까닭을 추적했다.

장기 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 2일’ 코너에서는 기봉 백광홍, 옥봉 백광훈 등 조선시대 ‘일문사문장(一門文壇)’을 배출한 장흥군 안양면 기봉리를 중심으로 수원 백씨들의 집성촌인 용산면 상곡리, 해남군 옥전면 송산리의 문화유적과 역사의 뒷이야기를 담았다.

해의 리포트 코너에서는 서양화가 이명숙 작가가 현대미술의 보고 미국 뉴욕 디아비론의 이모저모를 그림과 함께 실었으며,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하



문화전문지 문화통 plus 가을호

고 있는 스타마케팅 이모저모를 살폈다. 이밖에도 조용현 칼럼, 김영관 교수의 쪽지수필, 손바닥 등화, 화산 출신의 유명작곡가 공정식 인터뷰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이연수 기자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제주여행=고고학의 눈으로 제주와 만나는 역사여행 에세이.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마니아인 황운 작가가 편견없는 가설과 다양한 문헌 해설, 부지런한 발품으로 제주 탐사 여행기를 전한다. 책읽는고양이. 416쪽.



◇어들이 걸린 자리엔 리엔1,2권=웹툰 누적 조회 수 1억 뷰의 ‘묘전전’ 켈리엔 작가의 신작. 1900년대 경성의 ‘오월중개소’를 배경으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원혼의 이야기를 정감어린 시선으로 풀어냈다. 손복북스. 256쪽, 252쪽. /이연수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카페

객실

예식장

회의실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